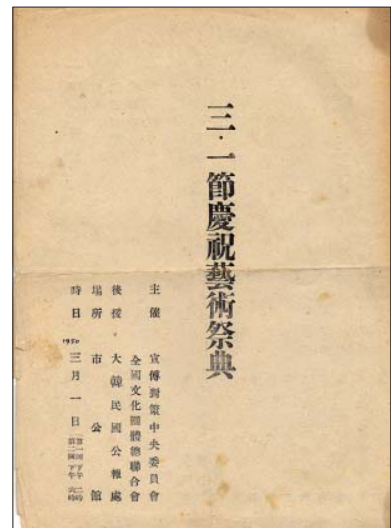


6. 피난 시절 (1950~1953)

1950년(29세) 1월 10일 예술가곡 「접동새」(김소월 시)를 작곡하였다. 이 곡은 나운영이 자신의 가곡 중에서 가장 애착을 느끼는 작품으로서 우리나라 가곡 사상 최초(?)의 판소리풍의 곡이다. 거문고와 대금, 피리를 연상케 하는 전주에 이어 ‘접동 접동 아 울오라비 접동’의 주제가 나온 다음에 가야금과 장구를 연상케 하는 간주에 이어 판소리의 멋과 맛을 풍기는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이 이어진다. 장단, 가락은 물론이고 특히 화성 처리에 있어서 많은 고심을 한 이 곡은 다시 거문고와 대금, 피리를 연상케 하는 후주로 조용히 끝난다. 이 곡은 1952년 12월에 열린 <나운영 제1회 작품연주회>때 김천애(金天愛) 선생에 의해 초연되었다.³⁹⁾

2월 24일 「교향시 ‘삼일혁명」(Symphonic Poem 三·一革命)을 완성하여 3월 1일 시공관에서 열린 <삼일절 경축 예술제전>에서 서울교향악단과 나운영 자신의 지휘로 발표하였다. 프로그램에 실린 해설을 원문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교향시는 문학적 내용을 갖인 교향악곡이다. 이 곡은 특히 31회의 돌을 맞이하는 3·1절을 영원히 기념하고 또한 이 삼일정신을 계승하여 우리 조국이 하로 바빠 실지회복을 하여 완전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곡한 것이다. 그러면 이 곡의 내용을 간단히 적어 보기로 하겠다. 때는 새벽이다. 고종황제의 승하(昇遐)로 이 땅의 백성들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다. 멀리서 비가(엘레지)와 함께 신호나팔소리가 들려온다. 행진곡과 함께 모여드는 군중. 정오 종소리와 함께 독립선언문이 낭독된다. 투쟁, 시위, 행진, 항거는 시작되었다. 일헌(日憲)의 학살, 체포, 탄압은 심하다. 그러나 우리 겨레는 애국가를 고창하며 유유히 용감히 싸운다. 대한독립만세의 함성, 북, 징 소리와 함께 이 곡은 끝난다. 이 곡은 2월 15일부터 착수하여 10일만에 끝낼 수밖에 없었던 졸작이다.



이 음악회에서 윤용하의 교향곡 「조국의 영광」이 함께 연주되었다.

4월 서울 중앙방송국을 사임하고 국립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음악부 전임강사에 재취임하였다.

4월 9일 차녀 효진(孝珍)이 출생하였고, 6월 올포이스 현악 4중주단이 해산되었다.

6월 25일 한국동란이 시작되었다.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하고 서울에 남아 있던 나운영은 낮에는 쪽

39) 나운영 수상집 4집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155~156쪽

마루 밑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방으로 올라와 사는 힘든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전쟁 상황이 점점 더 격렬해지던 어느 날 인민군들이 집집마다 수색을 하기 시작했다. 이를 본 유경손은 급히 집으로 달려와 나운영에게 가사 없는 기악곡 중 아무 악보나 하나 골라 그 위에 별을 그리고 오늘 날짜를 쓰라고 하였다. 이윽고 들이닥친 인민군 앞에서 나운영은 침착하게 앉아 “문화선전성의 위촉을 받아 오늘까지 작곡을 완료하기로 하여 밤샘 끝에 이제 겨우 끝마쳤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다행히 인민군들은 그러냐며 순순히 나갔다.⁴⁰⁾

이와 같은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떨리는 심정으로 작곡한 작품이 10월 22일 작곡한 성가독창곡 「주기도 1」이다.

9·28 수복으로 승승장구하던 아군이 다시 남으로 밀리기 시작하자 나운영은 12월 해군군악대 군악대장 김준덕의 도움으로 해군본부 군악대 문관에 취임하여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 이때 나운영은 자신의 피아노와 책을 군악대에 기증하여 피아노도 함께 배에 실었다. 이 피아노는 영국제 크래머(CRAMER) 중고中古로 소리는 좋았으나 말하자면 오버 댐퍼(Over Damper)라는 구식 피아노여서 늘 불만이었는데, 그래도 이때 함께 피난을 가게 되어 이 피아노로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를 비롯한 가곡들을 작곡할 수 있었다.⁴¹⁾



[부산 피난시절]

40) 유경손 자서전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84-88쪽

41) 격월간 영창 1989년 4/5월호

나운영 부부는 부산 영주동에 있는 허 립(許立) 교장선생님의 도움으로 그 집에 방을 얻어 본격적인 피난생활을 시작하였다. 유경손은 길거리에 좌판을 깔고 앉아 피난 가며 가져간 물건들을 팔았고 나운영은 국민개창운동을 위해 각 지역을 돌며 활동하였다. 그러는 동안 정국이 차차 안정이 되며 해군군악대에서는 이전에 기증했던 피아노와 책을 돌려주었다.

나운영 부부는 이 피아노로 음악 개인지도를 시작하기로 하고 흰 칠을 한 함석관에 남색 페인트로 음악 개인지도라고 쓰고 밑에는 세로로 피아노, 성악, 작곡, 이론지도라고 쓴 후 지도指導 나운영, 유경손이라고 써 넣었다.⁴²⁾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이 간판을 보고 가랑머리를 탄 여학생 하나가 찾아온다. 이 여학생은 춘천에서 역시 피난 온 음악지망생으로서 해방 후 최초의 한글로 된 음악교과서에 실린 두 개의 노래, 나운영의 「아! 가을인가」와 김순애의 「물레」를 부르며 이 노래의 작곡가에 대한 존경과 선망과 감동을 안고 살아 온 학생이었다.⁴³⁾

조금 있자 어떤 청년 하나가 마중을 나왔다. 이 여학생은 “나운영 선생님 지금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제가 나운영입니다.” 하고 답하였다. 이 여학생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자기가 상상해 온 나운영은 60 내지 70세 정도의 할아버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새파란 젊은이가 나운영이라니… .



[이영자 교수와 함께]

이렇게 해서 제자가 된 이가 바로 이영자(李英子) 교수이다. 그 후 이영자는 그 어려운 시절, 나운영에게 8년간 혹독한(?)⁴⁴⁾ 음악수업을 받은 후 프랑스로 유학을 갔다 온다.

1951년(30세) 8월 1일 「Oriental Dance ‘파라문婆羅門의 분수’와 Ballet Music 「처용랑處容郎」을 작곡하였고,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부산극장에서 발레곡 「처용랑」을 직접 지휘하여 발표하였는데, 정인방 무용단의 위촉으로 작곡한 이 작품은 오영진 극본의 4막 2장의 대작인데다가 그때만 해도 표제음악적 작곡기법이 서툴렀고 또한 한국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을 조화시키기가 힘들었기에 매우 고심했었다



42) 유경손 자서전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97쪽

43) 이영자의 음악세계 (2005, 작곡가 초청 세미나) 2쪽

44) 이영자 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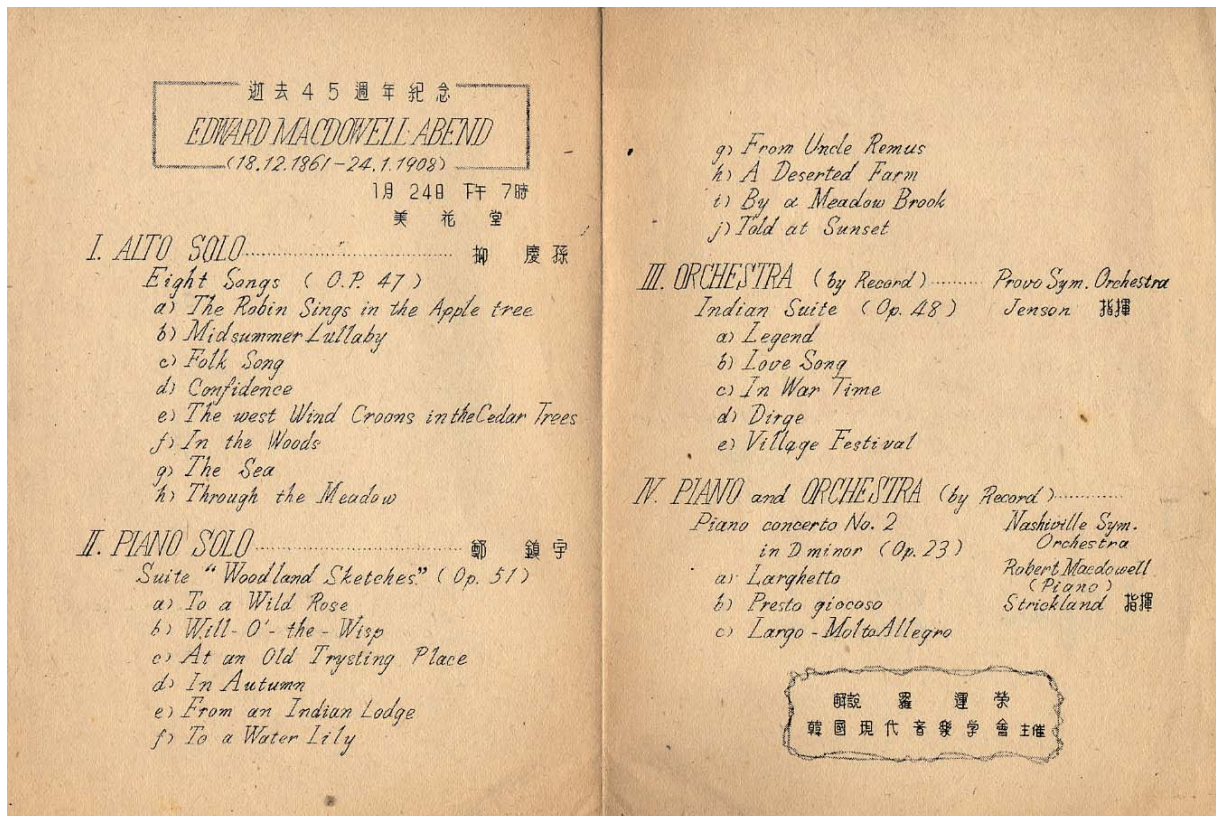
고 한다.⁴⁵⁾

10월 해군본부 군악대를 사임하고 육군 군악학교 문관교관에 취임하여 부산시 남부민동 22로 이주하였다.

1952년(31세) 4월 1일 육군 군악학교를 사임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 전임강사에 취임하였다.

5월 28일 칸타타 「충무공」(이은상 시)을 작곡하였으며, 6월 13일 성가 독창곡 「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시12편)를 작곡하였다.

10월 1일 한국현대음악학회를 발족하고 회장에 취임하였는데, 이 한국현대음악학회에서는 월례 현대음악 감상회를 개최하여 매월 맥다우얼, 드뷔시, 스트라빈스키, 바르토크, 프로코피에프, 쇼스타코비치, 블로흐 그리고 프랑스 6인조의 음악을 해설을 곁들여 레코드 음악감상을 하여 현대음악의 보급과 계몽에 앞장을 섰다.



45) 나운영 수상집4집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150쪽

이 학회는 1956년 한국현대음악협회로 새롭게 발족되어 그 이듬해 6월에는 국제현대음악협회(ISCM : International Society of Contemporary Music)에 정식으로 가입한다.

10월 20일 ~ 12월 11일 부산 광복동 로터리에 있는 미화당에서 한국현대음악학회 주최로 대위법, 화성학 강좌를 개최하였다.⁴⁶⁾

10월 25일 당시 음악계를 신랄하게 비판한 논문 「허세의 악단」을 『주간 문학예술』에 발표하여 상당한 필화(筆禍)를 겪었다. 이 논문 「허세의 악단」의 원래 제목은 「악단(樂團)을 해부(解剖)함」이었는데 나운영은 이 글을 발표한 후 당시 음악인들로부터 무차별 공격을 받게 된다. 독설가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인데 전문(專文)을 공개하면 다음과 같다.

「허세의 악단」 1952.10.25 주간 문학예술

동요나 가곡 두어 편만 써도 작곡가 행세를 할 수 있는 우리 악단! 음정, 박자는 맞았건 틀렸건 제멋대로 기본만 내면 환영 받는 우리 연주계! 도대체 평론이 없는 이 땅!

이것이 현금 우리 악단의 실정이다. 아무런 자극이 없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딜레마에 빠진 우리 작곡계, 연주계를 위하여 나의 항상 느꼈던 바를 몇 가지 적는 것도 정녕 무익한 일은 아닐 것이리라.

먼저 작곡계를 바라보건대 여기에는 몇 가지 파(派)가 있다. 첫째로 작곡가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소위 <T.S.D파>이다. 이 파는 아직 학습도상에 있는 자들과 고전과 음악 이외의 것은 생리적으로 맞지 않는 일종의 고고학자(?)들의 집단이다. 나는 특히 이것을 T.S.D파로 부르고 싶다. 즉 I, IV, V의 세 가지 화음만을 주로 사용하여 작곡하는 파를 가리켜 내가 지은 가칭이다. 정3화음, 부3화음, 7화음, 변화화음 등 화음은 많은데 하필 그 중에서도 이 세 화음만을 애용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하기가 동요, 찬송가, 가곡 등은 될 수 있는 대로 상식적인 화음을 쓰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으나 그래도 정도 문제가 아닌가? 「무지한 자들이여! 완고한 자들이여! 묻노니 그대들은 어느 때까지 18세기의 탈을 쓰고 안주할 생각인가?」

둘째로 많은 것은 <민족파>이니 이 파는 민족적 색채를 나타내보고자 노력하는 자들의 집단이다. 이는 대단히 좋은 일이나 이것이 한·양(韓·洋)의 형식적 절애(折衷)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창극조나 민요조의 선율에 3화음이나 왈츠 리듬을 붙이는 것은 마치 양복 입고 갓 쓴 격이다. 이런 자들은 모름지기 소위 근대화성 중에서 5도 화성(또는 4도 화성), 부가화음 등을 연구하여 우리 선율에 잘 부합되는 독특한 화성을 발견해야할 것이 선결 문제이며 우리의 장고장단을 연구함으로써 선율, 화성, 리듬이 완전히 조화되는 수법을 써야할 것이다.

셋째로 <낭만파>가 있기는 하나 수적으로 매우 적다. 현대파는 고사하고 낭만파로 지목할 만한 사람은 손뼉을 정도임을 볼 때 우리 작곡계가 얼마나 나오되었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 하기가 양악이 전도사로부터 이 땅에 들어왔고 또 오늘날의 작곡가의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자라난 관계로 부지불식간에 찬송가식 고전파 음악이 골수에 뿌리 깊이 박혀있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 고민하는 자들도 많을 것이나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연구열이 부족한 데 원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다만 여기에서 나는 자아도취에 빠지지 말기를 이 파에 속하는 자들에게 말해 둔다.

46) 나운영 년보에는 1953년으로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확인한 결과 1952년임.

넷째로 <현대파>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것은 몇몇 작곡학도들 이외에는 관심조차 가진 사람이 적음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파에 속하는 자들은 선배 또는 교사들로부터 통렬한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단으로 불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주기술의 곤란으로 말미암아 발표의 기회를 가질 수 없으므로 실제적으로 전혀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완강한 교사들이여! 시대에 뒤떨어진 선배들이여! 현대음악을 무시 말라. 세계적인 사조를 막을 자 누구뇨?」 또한 이 파에 속하는 자들에게 일러주노니 「고의로 현대음악을 쓸려고 하지 말라. 언제나 작가는 자기에 충실해야 한다. 모더니스트로 가장한 것보다 한가지라도 현대음악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옳은 태도가 아닌가?」

우리 선배 가운데에는 확연히 조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기호(調記號)를 붙이지 않고 임시기호를 붙여 무조음악을 가장했던 분이나 또는 이동계명으로 음정을 더듬어가며 고의로 무조적 선율을 쓰기에 고생하던 사람들도 있음을 볼 때 이와같이 자기를 기만한 작품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하루바삐 고전, 낭만의 전통을 소화시키고 한걸음 더 나아가 현대음악을 쓸 수 있는 경지에까지 도달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조음악, 미분음음악, 6음음계, 12음음계, 합성음, 절대대위법 등등 가지가지의 특색을 가진 현대음악을 작품을 통하여 체험해보자. 현금 미국이나 구라파는 물론이고 일본에서까지 쇤베르그의 작품이 유행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나라만 T.S.D파 음악에서 꿈을 꾸고 있을 것인가? 「작곡가들이여! 분발하자! 민족성에 입각한 세계음악으로서의 우리 음악을 수립하기에 매진하자!」

작곡계가 이와같이 침체상태에 빠져있는 이때에 연주계는 과연 어떠한가? 연주는 완벽에 가까운 기교와 적절한 표현에서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다. 즉 기교와 표현이 모두 중요하나 그 중에서도 기교가 선결문제이다. 세계적 제금(提琴)⁴⁷⁾ 교수인 레오폴드 아우어는 일찍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술은 기교가 끝난데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현금 우리 연주계에 일대 경종을 울리는 무서운 교훈이다. 즉 기교가 끝나기 전에는 표현을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음정, 음색은 그만 두고라도 박자, 리듬조차 틀리는 것이 상례(?)인 우리 연주가들이여! 「소질을 논하지 말라. 그것은 한낱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열 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느니라.」

다음으로 기교에 따르는 문제는 해석, 표현이니 이것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연주법(표현법)에는 기준이 있다는 것과 그 기준은 악곡을 이론적으로 해부하면 저절로 발견할 수 있다」는 두가지이다. 즉 악곡의 선율에 있어서 비화성음의 종류(경과음, 보조음, 계류음, 전과음, 선행음, 보속음 등)를 분명히 구별함에 따라 연주법이 발견되고 화음의 종류와 형식의 구별에 따라 강약, 속도, 표정 등 여러 가지 해석법을 알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밖에도 작곡자의 전기라든가 그 작품이 제작되었을 때의 시대적 배경 등도 고려하여야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연주법을 좌우하는 것은 화성과 형식의 이해에 있다. 흔히 우리나라 연주가 - 특히 합창지휘자들 가운데는 악곡을 이론적으로 해부해 보지 않고 오로지 근거 없는 기분 또는 감정만으로 표현하는 자들이 많음은 한심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만약 연주법에 기준이 없다면 정신질환자일수록 더 독특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이 이론을 무시하는 연주를 나는 <감정과다증 환자>라고 불러둔다.

이상 말한 여러 가지 점을 검토해볼 때 현금 우리 연주계에 있어서 연주법(해석, 표현법)의 이론을 시급히 확립시킬 것이 당면과제라고 나는 생각한다.

끝으로 우리 악단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전문적인- 권위 있는 평론가가 나오기를 고대한다. ‘디렛탄트⁴⁸⁾가

47) 편집자 주: 제금(提琴): Violin.

48) 편집자 주: 디렛탄트(diletante)- 문학·예술의 애호가, 아마추어 평론가

평론할 시기는 이미 지나간 지 오래다. 평론가의 책임은 실로 중대하다.

이 글에 대한 반응은 즉각 나타나 신문에 반박, 비난 기사가 실리고 이에 대해 나운영은 다시 말한다.

주간 『문학예술지』에 게재되었던 나의 평론 「악단을 해부함」이 편집자의 독단으로 「허세의 악단」이란 제목 하에 발표되었을 때 이 제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불쾌감을 느낀 자는 나 자신이었다. 악단인의 일원인 나 자신이 허세란 말을 쓴다는 것은 마치 〈드러누워 침 뱉는 격〉이기 까닭이다. 하여튼 이 평론이 비단 음악계뿐만 아니라 타 분야에까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만은 사실이다. 허나 의외에도 음악인 가운데 이것을 악의로 해석하는 자가 많음을 나는 유감으로 생각한다. 나는 결코 평화로운 악단을 교란시키려는 것도, 선배·동료·후진을 모욕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낙후된 우리 악단을 위하여 또한 딜레마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 악계를 위해 나의 안타까운 심정을 호소했을 따름이었다. ... (중략)...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예술 분야에서는 현대적 감각을 듬뿍 지닌 회화·시 등이 속출되고 있는 데 반해 음악만은 소위 찬송가조—이것은 찬송가를 모독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 서양식 창가조를 두고 하는 말이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물론 그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태만과 무지에 있다고 나는 본다. 마음 문을 열어 놓고 세계적 조류를 호흡하자. 무지는 죄악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의 같은 세대의 작가들이 무엇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자. 이 안타까운 심정을 아는 자는 알리라.⁴⁹⁾

역시 독설毒舌이다.

12월 6일 성가 독창곡 「피난처 있으니」(시46편)를 작곡하였고, 12월 10일 그의 첫 가곡집 『아흔 아홉 양』(한국 현대음악학회)을 출판하였는데 이 가곡집에 실린 작품은 모두 7곡으로 「가는 길」(김소월 작시), 「달밤」(김태오 작시), 「아흔 아홉 양」(E.C.Clephane 작시), 「박쥐」(유치환 작시), 「별과 새에게」(윤곤강 작시), 「집동새」(김소월 작시), 「강 건너간 노래」(이육사 작시)가 실렸다.



이 가곡집 후기에서 나운영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8·15 이후 오늘날까지 걸어온 나 자신의 발자취를 회고하며 아울러 낭만에서의 탈피를 기억하는 이 초라한 가곡집이 조금이라도 민족음악 수립에 도움이 될까 하여 부끄럼을 무릅쓰고 감히 내놓는 바입니다.

별로 많지 않은 가곡이나마 그 가운데서 소위 서양 성가조를 벗어난 낭만적 또는 민족적 가곡이라고 생각되

49) 나운영 수상집 4집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168-169쪽

데, 이 중에서 「통일행진곡」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불리어졌다.⁵⁰⁾

‘압박과 설움에서 해방된 민족 싸우고 싸워서….’로 시작되는 애국적인 가사가 세월이 한참 지난 후 어린이들이 고무줄놀이를 할 때 ‘앞바퀴 뒷바퀴 자동차 바퀴….’로 바꿔 부르던 바로 그 노래이다.

또 문교부 편수국의 위촉으로 「금강산」(강소천 요), 「어린이노래」(강소천 요), 「흥부 놀부」(강소천 요), 「구두 발자국」(김영일 요), 「유관순」(강소천 요), 「이순신 장군」(최태호 요), 「최영 장군」(최태호 요), 「쾌지나 칭칭」 등을 작곡하였는데, 이 중에서 「흥부 놀부」와 「쾌지나 칭칭」은 민속조민俗調 동요의 첫 시도였다.⁵¹⁾

1953년(32세) 4월 7일 중앙교회에서 한국교회음악협회 주최로 〈부활절 음악예배〉를 드렸는데, 나운영이 연합성가대를 지휘하였고 유경손이 나운영의 「피난처 있으니」를 독창하였다. 이날 황성수 회장의 사회로 김천애, 손윤열, 유경손, 김치석, 김노현의 독창이 있었고, 정재동의 반주로 이동훈이 바이올린 독주를 하였다.

5월 3일 해군 군중감 정달빈 목사님의 위촉으로 성가독창곡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시23편)를 작곡하였는데, 이 곡은 단간방에 피난 보따리를 풀어 놓고 네 식구가 고생하며 살 때에 홀연히 영감이 떠올라 단 3분 동안에 멜로디와 반주까지 모두 작곡하였다고 한다.⁵²⁾ 악보를 보면서 멜로디만 베껴도 3분 이상 걸릴텐데 반주까지 다 붙이면서도 3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여 나운영은 항상 입버릇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구로 삼으셔서 탄생한 ‘영감(靈感)에 의한 작품이다.’라고 말하곤 했다. 이 곡이 해군본부 교회에서 알토 유경손에 의해 초연되었을 때 연주자와 교인이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렸으며, 나운영이 한국적인 성가를 작곡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도 이 때부터이다.

5월 5일 성가 독창곡 「여호와여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시 15편)을 작곡하였고, 6월 28일 성가 독창곡 「주의 성도들아」(시 30편)를 작곡하였다.

8월 서울이 수복됨에 따라 부산 피난시절을 마감하고 **서울 청과동 1가 89의 67** 옛집으로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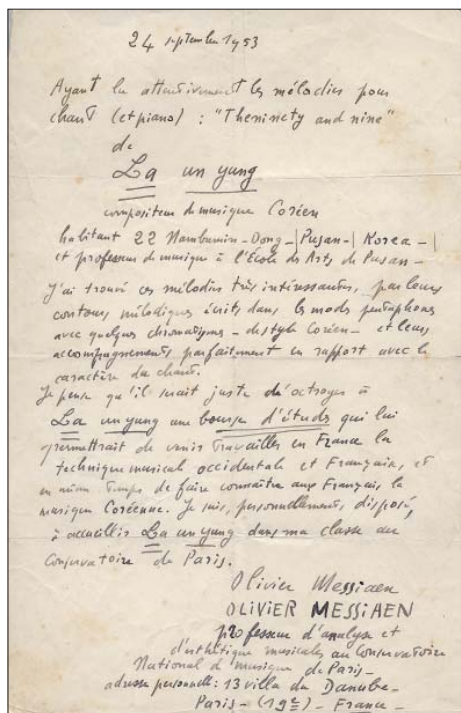
9월 24일 회의 참석차 프랑스 파리로 가는 황성수(黃聖秀) 의원에게 부탁하여 이전에 **메시앙(OI-**

50) 나운영 수상집 4집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149쪽

51) 나운영 수상집 4집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149쪽

52) 나운영 수상집 4집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149쪽

ivier Messiaen)에게 보냈었던 작곡집 『아흔 아홉 양』에 대한 인정을 받는 편지를 받게 되고 국립 파리 음악원 입학초청을 받는다.



1953. 9. 24

노래와 피아노를 위한 멜로디(나운영의 아흔 아홉 양)를 주의 깊게 읽어 보았습니다.

나운영 대한민국 부산시 남부민동 22번지에 살고 있는 한국인 작곡가, 부산, 예술대 교수.

몇 개의 한국식 반음계로 이루어진 5음 음조로 쓰여진 멜로디 곡선들로 인해, 멜로디들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노래 성격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반주 또한 그러했습니다.

나운영 선생은 면학장학금을 받아서 프랑스어와 서양 음악 기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프랑스인들에게 한국 음악을 알릴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나운영이 파리예술학교 본인 학과의 학생으로 입학하게 된 것을 기꺼이 환영하는 바입니다.

올리비에 메시앙
파리국립음악원 음악분석 교수

나운영은 이 편지를 받고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유학을 가기로 결심을 한다. 일본 유학시절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연구과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한도 풀고, 어렵게 구한 책과 악보를 통해 혼자 고군분투 하면서 연구한 것을 확인도 하며 아울러 유럽의 새로운 음악풍조를 몸소 느끼기 위해 프랑스로 가기로 결심을 한 것이다.

9월 26일부터 다음해 12월까지 총무로 2가 하모니 음악다방, 토향다방, 담수다방, 미국문화관 소극장 등을 옮겨 다니면서 한국현대음악학회 주최로 음악감상과 함께 음악강좌도 개최하였는데, 나운영이 편찬한 팜플렛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9월 26일 (1) Bela Bartok 연구
-하모니다방

Bartok와 민속음악, Bartok 년표, Bartok 예찬, Bartok의 말, 근대 현대 작곡가 일람

10월 5일 (2) J.S. Bach 연구 -하모니다방

Bach 년표, Barock Style과 Basso Continvo에 대하여, Hoch Barock에 대하여, Bach의 본질, Neo-classism에 대하여, Gothic에서 Classic Style까지의 작곡가 일람.

11월 9일 (3) Brahms 연구 - 하모니다방

Brahms 년표, Brahms 작품표, Brahms의 수법, Brahms 비판

12월 4일 (4) Stravinsky 연구 - 토향다방⁵³⁾

Stravinsky 년표, Stravinsky 작품표, Stravinsky 비판,
Stravinsky의 말, Stravinsky 악보편성, 현대적 작품 일람.

1954년 2월 15일 (6) French Six 연구 - 하모니다방⁵⁴⁾

French Six에 대하여, 불란서 근대, 현대 작곡가 일람,
French Six 비판

2월 25일 (7) Danish Music 연구 - 담수다방

정말(丁抹)음악사개관, 정말 작곡가 소개, 정말 작곡가 비판

3월 7일 (8) Beethoven 연구 - 미국문화관 소극장

Beethoven 약전, Beethoven 비판, Symphony No.1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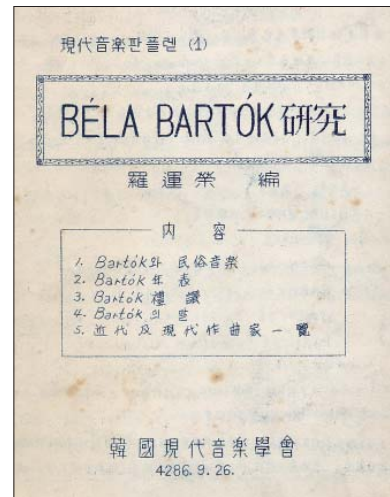
6월 17일 스트라빈스키의 밤

7월 13일 쉰베르크의 밤

8월 14일 이베르의 밤

9월 4일 미요의 밤

12월 10일 메시앙의 밤



나운영은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음악다방이나 감상실에서 음악감상회를 개최하였는데, 작곡가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악곡을 직접 분석하여 줌으로써 음악애호가들도 클래식 음악을 분석하며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잠시 당시의 음악다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50년대의 클래식 음악다방은 단순히 차를 마시기 위한 장소가 아니었다. 개개인이 오디오 시설을 갖추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고, 더욱이 레코드판을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든 시절이었기에 당시의 음악애호가들이나 음악인들 대부분은 음악을 듣고 싶으면 음악다방에 갈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이 곳은 음악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 당연히 음악다방이나 음악감상실마다 개성이 다른 모임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모인 사람들의 음악취향에 따라 그 날의 감상음악이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나운영의 다방순례가 시작된 것이다.

53) 팜플렛 (5)는 찾지 못함.

54) 이 팜플렛 뒷면에 주인 한덕준의 글이 실려 있는데, 아마도 하모니 다방이 문을 닫게 되었던 것 같다.
'감사하였습니다. 여러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하모니의 막은 이번이 종막을 가져오게 되었음을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들에게 삼가 말씀드리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주인 한덕준'

나운영에게 있어서 음악다방은 연구실이자 음악감상실이자 레슨실이었다. 나운영은 이 곳에서 새로운 음악을 듣고 연구하고 자신의 작품을 구상하였으며, 이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음악을 듣고 제자들의 작품을 검토해 주었다. 하지만 한 다방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 음악다방에는 음악전공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음악애호가들이 고전음악이나 낭만음악을 들으러 오는데, 나운영과 그의 제자들은 주로 현대음악을 신청하였기에 주위 동호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미8군 등을 통해 조금씩 흘러나오는 클래식 레코드판을 구하는 것도 힘든 시절, 그 중에서도 현대음악을 듣는다는



[음악다방에서 해설하는 모습]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시절이었기에 나운영은 이 다방에서 저 다방으로 옮겨 다니며 연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나운영의 제자들도 덩달아 이 다방순례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제자들에 의하면 나운영은 이 다방에서 저 다방으로 이동하는 시간에 주로 구상하고 있는 작품의 테마를 흥얼거리며 기억해 두었다가 다방에 도착하는 즉시 메모를 하곤 하였다고 한다.

11월 26일 새문안교회에서 열린 한양공과대학기독교학생회 주최 <졸업, 환도 축하 음악예배>에서 유경손의 반주로 남성합창단인 한양남성합창단을 지휘하였다.⁵⁵⁾

12월 말 나운영은 프랑스 유학을 위한 수속을 시작하며 부푼 꿈에 들떠 있었는데, 막상 여권 수속을 시작하자 여행 불가 판정이 내려졌다. 연좌제에 걸린 것이다.

나운영의 셋째형인 나순영(羅順榮, 1919~ ?)은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조교수를 한 당시 국내 기생충학 전문가 2인 중의 하나였다.⁵⁶⁾

또한 나순영은 당시 국내에서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에 나오는 잉글리쉬 혼을 불 수 있는 몇 안 되는 연주가 중의 하나로 경성대학 관현악단, 고려교향악단에서 오보에 주자로 활동하던 음악애호가였는데 -기생충학 전문가였기 때문인지 잉글리쉬 혼 주자였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⁵⁷⁾- 6.25 사변 때 납북되었다. 그래서 이 셋째형



55) 프로그램에 한국 초유라고 적혀 있음.

56) 한국건강관리협회 홈페이지 중 기생충의 역사

57) 1946년 6월 2일 제1회 경성대학교향관현악단 연주회 프로그램에 Oboe 나순영 있음. 이 프로그램의 연주곡목 해설도 나순영이 하였고 첫 곡인 안익태의 <애국가>는 나운영이 편곡하였음.

나운영 건으로 신원조회에서 걸린 것이다.

그 당시에는 월북 또는 남북 가족에 대한 연좌제가 있어 해당자는 유학은커녕 여행조차도 금지되던 시대였으므로 나운영의 유학에 대한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그래서인지 나운영은 어린 시절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을 3살 터울 셋째형에 대해서는 평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001년 조선일보에 이 셋째형이 북한에서 의과학연구원 위생연구소 기생충연구실 실장이라는 상당한 지위에 올라 있다는 기사도 나왔었다. 나운영의 불타는 창작력과 실험정신이 더욱 세련된 유럽의 기법과 어울려져 마음껏 나래를 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운영은 그 후로도 70년대 초까지 몇 차례 더 유학을 가기 위해 애써 보지만 번번이 불가 판정이 내려져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없는 뼈아픈 한을 안게 된다. 이것이 얼마나 사무친 한이 되었는지, 나운영은 나이 60에 가까운 1978년에도 이태리 유학을 가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이 역시 무산되고 만다.